

‘불교인권선언’

95년 영국 ‘불교윤리’ 제정

1995년 한해동안 ‘불교와 인권’을 주제로 인터넷 전자포럼을 개최한 영국의 저명한 불교학술지 <불교윤리>가 그해 10월14일 포럼을 마치며 불교인권선언문을 제정·선포했다. 인권선언문은 <불교윤리> 발행인 데이비드 키온교수(영국·런던대), 찰스 프리비쉬교수(미국·켄싱턴·아리아주립대) 등이 작성했다. 인권선언문을 받게한다.

인간은 타인을 확대하지 않고 상호존재에 협력하고 정신적인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 이 번영은 인간의 육체적 존재와 사회적 자유와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계급적 세계관이 광배해진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다. 상호 의존적 세계관 만이 인간의 고(苦)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의 본성과 그들이 만드는 삶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아상(我相)을 부정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에는 ‘고’란 타인을 매개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훈도 담겨있다. 자신의 고를 줄이기 위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서는 일이다. 그 행위는 다시 업으로 돌아온다.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나’라는 생각은 망상일 뿐이다.

유정·무정물은 서로 의존해 있으며, 그로 인해 생겨나는 호혜(互惠)의 의무를 갖는다. 또 유정물은 현상(現生) 내생(來生)에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양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다.

첫째, 모든 인간은 부처님에 비폭력(ahimsaa) 가르침에 따라 어떤 타인과 어떤 정부에게서도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인종, 국적, 종교, 성별, 피부색, 지적 능력, 정치적 관점 등으로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다. 셋째, 인간은 자신을 위해 있는 환경과 유정물을 보호하고 번영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세계인권선언 선포 50주년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생명 자유 평등 ‘아직 낙후’

교도소등 인권유린행위 근절 시급 국민들 인권의식 신장 관심가져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대통령은 각종 인권상의 단골 수상자가 되었고, 올해 안으로 국민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인권법도 제정된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와 안기부도 잇달아 인권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문 선포(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 50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은 이제 인권 선진국인가.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은 듯 하다. 결국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 신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용시설의 가혹행위

최근 보도된 양지마을 원생 인권유린 사건들 간간히 터져나오는 일부 정신질환자·부랑인 수용시설 및 무허가 기도원 등의 가혹행위 보도는 이들 수용시설의 인권침해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꾸준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협받는 약자의 생존권

청부 철거 업체의 폭력에 시달리는 재개발지구 주민들과 노점상 등 ‘소의계승’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노동자(외국인은 더욱 심각)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확대받는 아동 인권

어린이 인권침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우리나라 부모의 76%가 체벌한 적이 있다는 갈림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등 성폭행 피해자중 12.4%는 13세 이하 어린이다.

■교정시설의 인권유린

탈옥수 신청원은 교도소에서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 인간이하의 인권유린을 당해 탈옥했다고 밝히고 있

다. 겨울에는 통상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무더위와 싸운다. 화장실 냄새를 참아가며 몸이 아파도 의과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리 교정시설의 현실이다.

■수용시설의 가혹행위

최근 보도된 양지마을 원생 인권유린 사건들 간간히 터져나오는 일부 정신질환자·부랑인 수용시설 및 무허가 기도원 등의 가혹행위 보도는 이들 수용시설의 인권침해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꾸준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협받는 약자의 생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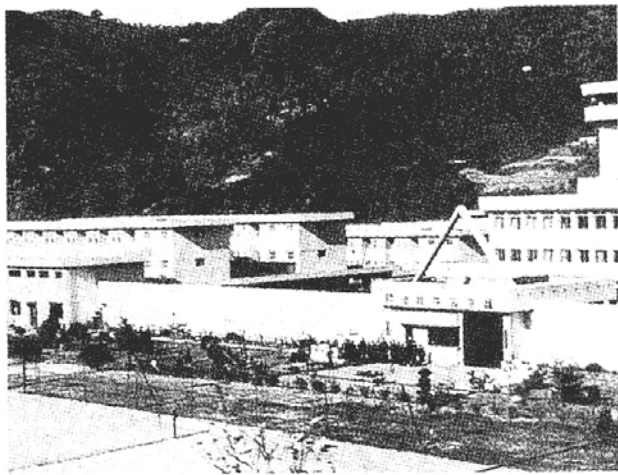
청부 철거 업체의 폭력에 시달리는 재개발지구 주민들과 노점상 등 ‘소의계승’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노동자(외국인은 더욱 심각)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확대받는 아동 인권

어린이 인권침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우리나라 부모의 76%가 체벌한 적이 있다는 갈림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등 성폭행 피해자중 12.4%는 13세 이하 어린이다.

■교정시설의 인권유린

탈옥수 신청원은 교도소에서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 인간이하의 인권유린을 당해 탈옥했다고 밝히고 있



◇ ‘인권의 무덤’ 청송감호소. 재소자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된다는 증언이 있다.

불교의 눈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하늘과 땅 사이에 내(인간)가 가장 존귀하다.는 부처님의 인권선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와 같은 뜻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데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불교는 ‘인신(人身)의 난득(難得)’에서 찾는다. <잡아함경>은 사람 몸을 받는 것이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번 바다에서 때를 때 구멍이 뚫린 부목(浮木)을 만나서 것처럼 어렵다고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소중함 타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트는 아픔을 무서워 하지 않는 자도 없다. 자기를 측은히 알아 견뎌주어서 남을 죽이거나 매질하지 말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은 “전세계 불자들은 부처님의 인간존중과 생명해방 정신을 본받아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들이 하루 속히 석방되고 더 이상 구속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인권 개혁조치를 유도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

“안락 원하거든 국토 잘 지켜라”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나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의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 원하거든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공평명경>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 그 강악을 잘 판단한 다음에 방면으로서의 지혜를 써서 평화(平和)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사람은 의당 천주(天主)가 될 것이다. <제법집요경>

■자기를 사랑하려는 사람은 적이나 도적이 쳐들어 오기 전에 가운과 국경을 잘 지키듯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니 평소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지키지 않다가 난리와 도적이 만나면 고통과 두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별역집아함경>

■3종업(三種業)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의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연들을 포육(育)하는 것이고, 잡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식(住食)을 충족케 하는 것이며, 농업과 상업은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 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소대지정장삼론경>

■통치자의 첫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백성의 어머니로서 그 백성을 법으로 보호한다...전통왕은 모든 왕국의 군주가 되고 그 왕국들은 다 그 정도(正道)에 따라서 제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불법에 따라서 의무를 다 했다. <대소대지정장삼론경>

■5종대사(五種大士)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본업에 잘 뛰어 북적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여 정적이 손상되지 않게 하며, 탐욕과 즐거움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경>

■국방의 안정을 기하고 정법을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원한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이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공평명경>

상여금 모아 명퇴자 위로

대림산업은 최근 노사가 ‘고용안정 협약서’를 맺고 희망퇴직제를 실시. 전직원이 올해 반납하는 300%의 상여금 가운데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조성해 퇴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사측은 애초 형편이 어렵다며 퇴직위로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직원들이 떠나는 사람들의 ‘퇴직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나서자 결국 위로금 조성에 동의했다. 직원이 2천1백명이 이 회사는 상여금 100%씩을 반납하면 3억원 정도의 돈이 마련된다. 노조는 이 금액을 퇴직자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들 장학금 16년간 전달

강원도의 한 일선부대 지휘관들이 16년간 자매학교의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육군 울지부대(부대장 오현구 소장) 지휘관들은 지난 83년 3월부터 분기마다 자매학교인 강원도-고교에서 불우학생 4명씩을 선발, 장학금으로 25만원씩을 전달해주고 있다.

이웃사랑 선행 업소 표창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홍진)는 16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틈틈이 이웃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

성해는 업소 14곳을 선정, ‘이웃사랑 실천 선행업소’란 표창을 달아줬다. 구는 앞으로 이들 업소에 모범 음식점 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주동에 있는 음식점 ‘미리내(대표 최병기)’의 경우 90년도부터 행려병자를 위한 임마누엘집을 운영하고,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SW복제사범 실행 선고

프로그램 복제사범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0일 컴퓨터 프로그램 2억8천여만원어치를 무단복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여·39)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1컴퓨터학원에서 美 아도비시스템사의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남부시군 물러 팔당호 오염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오염유발 행위가 금지된 있는 팔당호 주변에 최근 한밤중에 낚시꾼들이 물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22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등 팔당호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단속이 뜸해지자 오후 9시부터 낚시꾼들이 밤새 낚시를 하면서 상수원에 딱밤을 마구 던지거나 술병, 라면봉지 등 쓰레기를 버려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신상품 팔래점통 ‘바이오 갈꿈이’

시간과 연료를 동시에 절약하면서 팔래를 삶고 쪄 수 있는 경제적인 팔래점통 ‘바이오 갈꿈이’. 세탁용 상단에 풀린 구멍에서 물이 끓을때의 압력을 이용해 뜨거운 비눗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손으로 일일이 뒤집을 필요가 없으며 늘거나 타지 않는다. 비눗물이 찜통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이중구조로 설계돼 있다. (주)태상교역, 4면8천원. (02)636-7138



영구명퇴직금 대우 화학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연령 제한없음) 1.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 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2. 저렴한 학비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3. 교수진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먹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 “교재+테이프”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일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①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②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범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사이즈 39x39cm 색상 빨강, 검정 가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 전화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學 研究所의 칸즈 다쓰시 박사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질제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퍼졌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수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게도 既成醫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력의 개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몸에 좋은 성상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죽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저절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 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희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學 研究所의 로버트 조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정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원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 받아서 정상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원치) ☎0547)437-4136, 437-41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은빛모래, 반짝이는 발자국이라 추억이 가슴으로 꽃어오는 바다. 물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은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원장 이영숙(본명)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녀 현실, 지방에 한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